



EMERiCs 신항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http://www.emerics.org/ 2019. 02. 28. 동남아시아	「동향세미나」 필리핀, 민다나오 자치법안 통과로 내전 종식 기대감 확산 작성 신민금 전문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

- 최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지역 내 주민투표 결과, 새로운 무슬림 자치정부 수립을 골자로 하는 방사모로 기본법(Bangsamoro Organic Law)이 발효되어, 이 지역에서 지난 50년간 이어진 내전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됨.
- 투표지역은 가톨릭교가 국교인 필리핀에서 무슬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 1970년대부터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무장 세력과 정부군간 유혈충돌이 지속되어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정정불안이 이어짐.
 - 방사모로 기본법은 새로운 자치정부 수립을 통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리핀 내 최대 무슬림 반군 단체인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과 필리핀 정부가 합의를 거쳐 입안한 법으로, 두테르테 대통령이 2018년 8월 서명함.
 - 주민투표는 기존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ARMM: 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 및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19년 1월 21일, 2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1차 투표에서 압도적 표차로 방사모로 기본법 발효가 확정됨.¹⁾
 - 2월 6일 치러진 2차 주민투표에서는 ARMM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신규 무슬림 자치구 편입 희망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가 이루어졌으며, 결과는 집계중이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찬성표가 우세해 이들 지역이 신규 자치구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주민투표 대상지역



자료: Channel News Asia.

- 방사모로 기본법 발효로 ‘방사모로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BARMM)’가 구성될 예정이며, 중앙정부는 신규 자치정부에 대해 광범위한 자치권 보장, 재정적 지원을 대가로 단계적

1) 방사모로 기본법 발효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1차 투표 결과, 찬성이 약 154만 표, 반대가 약 20만 표로 집계됨.

무장해제를 약속받음.²⁾

- 투표 결과에 따라 2019년 6월 말에 기존 ARMM 자치정부가 해산되고, 2022년에 방사모로 자치정부가 출범할 예정임.³⁾
- 방사모로 자치정부는 기존에 비해 입법, 행정, 재정권 등 폭넓은 자치권을 부여받고, 2차 투표 결과에 따라 더 넓은 지역을 포괄하게 됨.
 - 자치정부의 재정권 확대로 관할구역에서 걷힌 세금의 75%가 자치정부에 귀속되고, 중앙정부 세입의 5%도 할당받게 됨.
- 필리핀 정부는 무슬림 반군세력의 단계적 무장해제를 조건으로 분쟁지역 재건사업에 10년간 총 약 9억 5,000만 달러의 재정지원을 약속함.

□ 민다나오 자치법안 통과로 이 지역의 안보문제가 해소되어 필리핀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지 여부에 관심이 주목되며, 우리 정부와 기업은 향후 동향을 면밀히 검토해 민다나오 개발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음.

- 민다나오 지역의 항구적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군의 무장해제 약속 이행, 완전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강경파들의 불만 해소, 자치정부의 행정 역량 강화 등이 선결되어야 함.
- 민다나오 지역은 광물자원(금, 크롬, 구리, 철, 아연 등), 농산물(사탕수수, 코코넛, 파인애플, 바나나 등), 수산물 등 자원이 풍부해 기회의 땅이라고도 불리나, 정정불안으로 성장이 정체되어 필리핀에서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전락함.
 - 민다나오 지역은 면적이 남한과 비슷하고 인구는 약 2,400만에 달하며,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미개발된 부존 광물자원 규모가 8,400억 달러~1조 달러에 이를 정도로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임.
 - 2017년 기준 ARMM의 1인당 GRDP는 약 3만 페소(약 574달러)로 필리핀 평균 1인당 GDP의 약 1/5, 수도권(NCR) 1인당 GRDP의 약 1/15 수준임(필리핀 통계청).
- 민다나오 지역의 안정이 뒷받침되면 우리 기업들은 광업, 농림어업 분야 투자진출을 검토할 수 있고, 정부는 인프라 확충, 역량 강화 등 분야를 중심으로 ODA를 활용한 협력전략을 마련할 수 있음.
- 일본은 선제적으로 움직여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9년 2월 필리핀을 공식 방문해 민다나오 분쟁지역 도로망 건설사업 차관 계약(2억 달러 규모)에 서명하는 한편 분쟁지역 내 직업훈련, 역량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분야의 지원을 약속함.

EMERICs

참고자료

Nikkei Asian Review, CNN Philippines, The Diplomat, Rappler, The Philippine Star 등

2) BARMM: Bangsamoro 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

3) 필리핀 정부에 따르면 새로운 자치정부 출범 전까지 대통령이 방사모로 이행위원회(Bangsamoro Transition Authority)를 구성해 임시 정부 역할을 수행케 하여 권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규 자치정부 출범을 준비할 계획임.